



INTERVIEW

대한테니스협회 정희균 회장
“변화와 혁신으로
테니스 전성시대 만들자”

TEAM KOREA

빌리진킹컵 지역 예선
“육성+미래 둘 다 잡았다”
한국 여자 테니스, 25년 만에 플레이오프 진출

JUNIOR

대한민국 14세 이하 남녀 테니스 대표팀
ITF 월드주니어테니스대회 동반 본선 진출
ITF 14세 이상 아시아 챔피언십 종합 우승

INSIDE

하나증권 제2회 대한테니스협회장배
‘실업 데뷔 첫 우승 기쁨’ 김채리
‘5년 만의 우승 탈환’ 정홍



“변화와 혁신으로 테니스의 전성시대를 만들자” 대한테니스협회 정희균 회장

테니스는 최근 젊은이들에게 주목받는 ‘핫’한 스포츠다. 하지만 최근 협회 내부 사정은 썩 좋지 않았다. 채무가 쌓이면서 바람잡을 날이 없었다.

대한테니스협회 28대 회장으로 취임한 정희균 회장은 2년간 협회 정상화에 공을 들였다. 뒤엎긴 실태를 풀어나가면서 협회는 점차 정상화 궤도에 올랐다. ‘대한테니스’ 발간은 협회 정상화를 알리는 또 하나의 움직임이다. 정 회장은 ‘대한테니스’를 통해 현회의 일을 알리고 엘리트·생활 체육의 정보 교류의 장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Q 대한테니스협회에서 월간지를 발간했습니다. 발간을 결정하신 이유와 어떤 부분을 기대하시는지요?

첫 번째는 테니스인들에게 협회가 어떤 일을 하는지 알릴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협회가 하는 일을 알리면서 공감대가 형성되는 통로라고 할까요. 공론의 장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협회에서 하는 일과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는지 알릴 만한 매체가 전혀 없죠. 조금 더 자주 발간하면 좋겠는데 일단 시도를 먼저 해보자는 생각으로 월간지 형태의 협회 기관지 제작을 결심했습니다. 정확한 정보 전달을 하면서 좋은 건 칭찬받고 잘못된 건 비판 받겠다는 생각입니다.

Q 취임 후 2년간 협회 정상화에 힘을 쏟아오셨는데요. 가장 어떤 점이 가장 힘들었나요?

취임 때 공약 첫 번째가 협회 정상화였습니다. 첫 번째는 재정적 정상화와 두 번째는 협회 구성 요소를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이었습니다. 테니스인들의 화합을 이끌어내겠다는 생각으로 21년 3월부터 일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전임 회장이 남겨 놓은 빚이 70억 원 정도 됐습니다. 정상적인 흐름에서도 갚기가 쉽지 않은 금액이죠. 미디어월과의 관계도 잘 풀릴 것으로 생각했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협회에 압류가 들어왔을 때 ‘사상 초유의 스포츠 종목 압류 사태’라고 보도가 되기도 했죠. 제가 발인 일은 아니었지만 제가 회장이 되고 나서 일어난 일이니가 참피하고 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10kg 정도 살이 빠지고 7년을 끊었던 담배도 다시 피우게 됐죠. 그때 상당수가 제가 1년을 넘기지 못하고 회장직을 그만둘거라 했습니다. 공격하려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일에 부딪치는 게 두려웠던 건 아니었어요. 해결 해나가려는 걸 주변에서 방해하고 음해 하려는 게 힘들었죠. 그래도 대책위원회 구성을 통해 미디어월과의 합의를 이끌어내며 협회 정상화에 물꼬를 트게 됐습니다. 이 날 합의는 테니스인이 화합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테니스 재도약을 이루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Q 현재 협회는 정상화가 된 건가요?

다행히 미디어월과의 합의를 통해서 압류가 풀렸지만 지금도 1년에 10억 원 가까운 금액의 빚을 갚아나가야만 합니다. 족쇄만 풀린 것이지요. 이전에는 기업에 후원을 요청해도 압류가 되어 있으니 거절을 당했는데 그게 풀어지니까 일단 얘기가 됩니다. 하나중권을 비롯해서 기업들에게 후원을 받았고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체육회에서 주최하는 대형 공모 사업을 시행해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을 향해 시동을 걸었다고 할까요. 기업 후원 유치, 정부자금 지원, 미디어월과의 분쟁 해소를 통해 숨은 돌렸고 일단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습니다. 아직도 갈 길은 멀니다. 매년 빚 갚는데 적지 않은 돈을 쓰고 있는데 이 많은 돈을 주니어 선수들 키우는데 쓰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마음이 있지요.

Q 주니어 선수 육성에 각별한 애정을 쏟는다고 들었습니다.

일단 제가 아이들을 정말 좋아합니다. 미운 놈이 하나도 없어요. (하하) 양적으로 늘어나야 질적으로 향상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최대한 좋은 기량을 갖춘 선수 그룹을 넓히자는 생각입니다. 학교 팀은 공교육 형태로 양적인 부분을 담당하고 그중에서 뛰어난 기량을 자랑하는 선수들은 아카데미 등의 교육을 통해서 기량을 발전시킬 겁니다. 그리고 최고 수준의 선수들은 세계적인 유명 아카데미를 통해 훈련을 받게 하고 투어링 팀을 지원하는 것은 협회에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취임하자마자 별도의 주니어 육성 법인을 만들어 주니어 선수를 발굴하고 후원하기 시작했습니다. 협회는 노호영, 조세혁 2명의 장학생을 선발해 미국의 IMG 아카데미로 유학을 보냈습니다. 선수들은 3년간 훈련비 전액을 지원받고 그 외에 협회로부터 약 1억 원 정도의 장학금을 지급받습니다. 1호 장학생 노호영 선수가 후원 1년 만에 주니어 랭킹 500

위 권에서 50위 권으로 진입하며 그랜드슬램 주니어대회 본선에 직행했고, 2호 장학생 조세혁 선수는 워블던 14세부에서 초대 챔피언에 오르는 등 주니어 육성의 결과가 빠르게 나오고 있어서 매우 자랑스럽고 기쁩니다. 올해부터는 KTA 투어링팀을 출범해 유망 선수 약 10명을 선발해 훈련과 대회 출전을 지원하는 체계적인 주니어 육성 프로그램도 시행할 것입니다.

Q 주니어 육성 후원회 법인화를 결정한 이유도 알고 싶습니다.

앞서 이야기 했듯이 주니어 육성은 한국 테니스에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협회의 어떤 사정에도 흔들리지 않고 오로지 주니어 선수들을 체계적으로 후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별도의 법인을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제가 협회 회장 임기가 끝난 이후에 뭐라고 해보려고 한다고 오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의도가 아니라는 걸 알리는 차원에서 아예 법인화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Q 최근 국제대회에서 좋은 성적이 나고 있는 것은 협회에 좋은 동력이 되고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조직 운영하는게 나 혼자 잘된다고 될 일이 아니죠. 선수들이 국제대회에서 좋은 성과를 낸 것은 고무적인 현상입니다. 취임 첫 해 권순우 선수가 국제무대에서 활약하며 13년 만에 올림픽에 출전했고 18년만에 ATP 투어 대회 우승 소식을 전하며 좋은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또한 서울에서 열린 데이비스컵에서 승리하며 15년만에 본선 세계 16강 진출을 이뤄냈고, 본선에서 세계 최강국들과 겨루며 국내에서 볼고 있는 테니스 붐이 더욱 극대화됐습니다. 이렇게 좋은 분위기 속에서 협회 사상 최초로 하나증권과 메인스폰서 협약을 맺을 수 있었고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중 유일하게 대형 공모 사업 3종에 동시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덕분에 ‘테니스 잘나가더라’라는 말을 듣고 품을 내기도 합니다. (하하) 얼마 전에 배드민턴 박주봉 감독을 만났는데 ‘테니스 요즘 잘나간다’고 인사를 하더군요.

올해도 연초부터 권순우 선수가 한국 선수 최초로 ATP 투어 대회 2승을 따냈고, 남자 대표팀은 2년 연속 데이비스컵 본선에 진출하고 여자 대표팀은 25년 만에 빌리진킹컵 플레이오프에 진출하는 등 좋은 소식들이 연이어 들리고 있다. 이 분위기를 이어서 협회도 한국 테니스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Q 직접 테니스도 즐기신다고 들었습니다.

테니스를 친 지 오래된 것은 아닙니다. 테니스 칠 줄 모르는 상황에서 주변 사람들의 요청으로 전주시 협회장을 시작했습니다. 그 후 전라북도 생활체육 연합회장을 맡으면서 동호인 대회 랭킹 시상을 위해 대회장에 나갔습니다. 아는 사람도 없고 해서 ‘내가 인사를 먼저하고 다녀야겠다’고 생각해서 주변에 인사를 하는데 반응이 시큰둥 했었어요. 두 번째 또 갔는데 비슷했고요. ‘내가 테니스를 못치니까 그렇구나’ 싶어서 그날로 동호인들과 어울려야겠다는 생각이 아침 9시부터 레슨을 받았습니다. 같이 어울릴 정도는 해야할거 아니니까. 1년을 했는데 놀지 않아서 포기할까 하다 한 게 아까워서 했는데 테니스엘보우 걸리고 고생했죠. 레슨을 받기 시작한 지 3년째 부터는 포핸드스트로크 감이 왔습니다. 그때부터 재미 붙었습니다. 하루에 오전 오후로 2번 레슨 받기도 했죠. 10년간 평일은 매일 테니스를 치다시피 했습니다. 원래 테니스를 배우기 전에는 유도를 즐겨서 시간이 유도장에 나갔고 매달 스킨스쿠버하러 필리핀도 갔는데, 테니스를 즐기기 시작한 이후 다 끊었습니다. (하하) 매일 테니스 치고 주말에는 대회장 가는게 생활이 됐습니다.

Q 탁구, 배드민턴의 경우 유튜브, 스포츠채널 중계 등을 확대해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테니스의 홍보 방안이 궁금합니다.

제 취임 공약 중 상당 부분을 실행하고 있는데 두 가지 이뤄지지 않은 것이 한국테니스 트레이닝 센터와 테니스 전문 방송 채널입니다. 부채 문제가 있어서 할 수가 없었습니다. 트레이닝 센터는 이야기가 되고 있던 시와 협의 중 새로운 시장이 취임하면서 계획이 백지화되기도 했습니다. 방송의 경우 아직 테니스 전문 방송 채널 운영은 힘들지만 유튜브와 케이블 방송을 활용해 테니스 중계를 점차 확대하는 형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유튜브, 네이버 스포츠를 활용한 온라인 방송 중계를 확대 운영하고 방송사 업무 협약 체결을 통해 대회 홍보를 더욱 강화하며, MZ세대 트렌드에 맞춘 다양한 영상 콘텐츠를 기획해 온라인에서 테니스 팬들과 더욱 폭넓게 소통할 예정입니다.



Q 임기 기간에 가장 신경쓰시는 협회의 사업은 무엇이 있을까요?

빚을 갚는 것과 주니어 육성 기반을 다져놓는 것입니다. 협회가 미디어월과 기존 채권, 채무 관련 등 압류를 해지하며 원만한 합의를 했지만 여전히 부채를 분할 상환하고 있습니다. 많은 테니스인들이 부채 문제가 다 정리된 것으로 알고 계시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제 임기 끝까지 재정 정상화를 위해 노력해야 할 부분입니다.

또한, 재원을 마련해 유망한 선수를 키워나갈 생각입니다. 올해 출범하는 KTA 투어링팀을 통해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주니어 육성 프로그램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그런 면에서 트레이닝 센터가 무산된 것은 매우 아쉽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최상급 선수들을 꾸려 프로리그를 만들고 그 밑에 하부리그가 자리하는 선진 테니스 시스템도 필요합니다. 취임할 때 테니스 디비전리그를 만드는 것이 핵심 공약이었는데 지난해 처음으로 시행했고 2년차를 맞이한 올해는 리그를 세분화해서 시스템을 더욱 정착시킬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Q MZ세대가 테니스에 유입되고 있는데 이를 지키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 수도권 쪽의 테니스 인구는 최근 들어 살짝 줄어들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실내 연습장에서 연습하다 보면 후에는 경기가 하고 싶은데 경기장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 재미가 없을 것이고요. 지방은 경기장 확보에 문제가 없습니다. 수도권이 문제죠. 육사코트가 해결이 되어서 일반인들에게도 널리 개방이 되었으면 좋겠고 기업에서도 코트 지으려는 수요가 확대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협회에서는 연 60여 개의 동호인 테니스 대회를 개최하며 동호인 테니스 장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부터 테니스 초보자부터 프로 선수까지 전국 각지에서 수준별로 테니스를 즐길 수 있도록 테니스 디비전 리그를 시행하고 있는데, 코트장 예약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인 상황에서 동호인들이 거주 지역에서 본인 실력에 맞게 테니스를 지속적으로 즐길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Q 대한테니스를 보시는 독자들에게 인사 부탁드립니다.

문화, 예술, 체육은 자기만족이 첫 번째라고 합니다. 그게 맞지만 시야를 좀 넓혀서 봐주셨으면 합니다. 테니스 하시면서 주니어 선수들이 자기 근처에 있으면 잘 먹고 잘 운동하는지 봐주시고 시니어 선수들 응원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양적, 질적으로 커져야 협회도 나아질 겁니다. 테니스 인들이 테니스 팬을 키우는 데에 동참해주시길 바랍니다.

글/ 정지욱 기자 사진/ 유용우 기자, 대한테니스협회

“수십억원 빛 청산, 든든한 스폰서 확보, 주니어 선수 집중 육성, 국가대표 빛나는 성적...”

정희균 제28대 회장 체제 대한테니스협회 ‘환골탈태 2년’

한국 테니스는 요즘 오랜 암흑살해를 견뎌낸 뒤 만물이 생동하는 따뜻한 봄날을 맞은 형국이다. 엘리트 선수들의 낭보가 국가대항전(데이비스컵, 빌라진캅)과 ATP-WTA 투어에서 이어지고 있다. 그러는가 하면, 생활체육 부문에서는 20·30대들의 테니스 열풍도 거세다.

대한테니스협회 사업도 다양하고 풍성해졌다. 게다가 하나증권이라는 금융계 후원사 확보를 통해 협회 재정도 안정화됐다. 유망주들도 다수 등장해 미래를 밝게 하고 있다.

전임 회장들과의 치열한 경선을 통해 당선된 정희균 제28대 대한테니스협회 회장. 사실 그가 지난 2021년 3월 공식 취임한 뒤 협회는 1년 남짓 전임 회장 때 발생한 여러가지 문제로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특히 ‘육사코트’ 문제로 62억원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빚이 누적되면서 협회는 움썹달싹하지 못하는 처지가 됐다. 하지만 협회는 지난해 4월6일 협회 사무실에서 채권자인 미디어월(대표 장영보)과 ‘채권 채무 해결 합의서’에 서명하면서 결정적으로 정상화 계기를 맞았다. 합의내용은 △(육사코트 실추된) 미디어월의 명예회복 △협회의 미디어월에 대한 총 62억원 상당액 중 육사코트 계약 복원을 전제로 한 32억원 만치 △잔여 30억 중 미상환금 15억5000만원의 분할상환 △서명 즉시 압류해지 등이었다.

정희균 회장은 이와 관련해 “미디어월과의 합의를 통해 대한테니스협회의 경제적 어려움이 해소되고, 테니스인들이 화합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테니스 재도약을 이루는 중요한 전환점으로 만들겠다”고 의미를 부여한 바 있다.

실제로 이후 협회는 막대한 빚더미에서 벗어나 정상궤도에 올랐고, 정 회장의 추진력과 노력으로 지난해 9월 26일 하나증권과 메인스폰서 협약을 체결하면서 재정적으로도 탄탄한 협회로 거듭났다. 하나증권이 국가대표 공식 파트너는 물론, 엘리트 및 생활체육대회 네이밍 스폰서가 되기로 한 것이다.

이 자리에서 이은형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은 “하나금융그룹은 수년간 인가비인기 중목을 가리지 않고 스포츠 후원 사업을 통해 대한민국 스포츠 대중화와 선수 육성에 이바지해왔다”면서 “오늘 협약을 통해 대한민국 테니스의 국내 발전과 세계화에 밑거름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해 든든한 후원자가 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 회장 체제에서 엘리트 선수들은 빛나는 성적으로 한국 테니스의 발전 가능성을 한껏 보여줬다. 무엇보다 남자 간판스타 권순우

(당진시청)가 지난 2021년 9월 26일 만 24세의 나이에 ‘아스타나 오픈’(ATP 250 시리즈) 단식 우승을 차지한 것은 의미가 컸다. 지난 2003년 아디다스 인터내셔널 단식에서 우승한 이형택 이후 무려 18년 8개월 만에 한국 선수가 이뤄낸 ATP 투어 단식 정상 정복이었다.

권순우의 활약은 여기에 그치지 않았다. 지난 1월14일 열린 2023 애들레이드 인터내셔널(ATP 250 시리즈) 단식에서 1년4개월 만에 생애 두번째 정규투어 대회 우승을 차지했다. 한국 선수가 ATP 투어 단식에서 2번 우승한 것은 그가 처음이다.

여자 간판스타 장수정(28·대구시청)도 40년 만에 한국 테니스의 역사를 새롭게 썼다. 1982년 이덕희 이후 WTA 투어 단식 첫 우승을 차지한 것이다. 지난해 7월9일 스웨덴 베스타드에서 열린 ‘125K 노디아오픈’에서다.

정희균 회장은 취임 뒤 특히 한국 테니스의 미래인 ‘주니어 육성’을 중시하면서 지원책도 강화했다. 취임 첫해인 지난 2021년 11월 IMG아카데미와 ‘주니어 육성 및 지도자 교육, 단기연수생 파견’ 등에 관한 포괄적 업무 협약을 체결한 것은 매우 의미가 있다.

이 협약에 따라 유망주 노호영(17·오산GS)이 1호 장학생으로 선정돼 지난해 3년 동안을 기한으로 미국 IMG아카데미로 연수를 떠났다. 올해는 조세혁(15·남원거점스포츠클럽)이 2호 장학생으로 IMG아카데미로 연수를 떠났다. 조세혁은 2022 윈블던에서 신설된 14세 이하(U-14) 남자단식 초대 챔피언에 등극하며 주목을 끌었던 유망주다. 두 선수는 (사)한국주니어테니스육성후원회를 통해 각각 약 1억원을 지원받는다.

남녀 국가대표팀의 선전도 눈부시다. 박승규 감독이 이끄는 남자대표팀은 권순우, 남지성, 송민규, 홍성찬 등의 활약을 앞세워 지난해 15년 만에 데이비스컵 본선에 진출하는 쾌거를 달성했다. 이어 올해는 사상 처음으로 2년 연속 데이비스컵 본선 진출에 성공했다. “하연 된다”는 선수들의 정신력이 돋보였다.

신임 김정배 감독이 이끄는 여자대표팀도 김다빈, 백다연, 구연우, 최지희, 정보영 등을 앞세워 25년 만의 빌라진캅(중전 페더레이션스컵) 플레이오프 진출을 이뤄냈다.

대한테니스협회가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체육회 시행하는 ‘승강제리그’, ‘유·청소년 클럽리그(h-League)’, ‘유·청소년 주말리그’ 등 대형 공모사업 3종에 동시 선정된 것도 뜻깊은 일이다. 이 3가지 사업에 동시 선정된 종목은 대한체육회 78개 회원 종목단체 중 테니스가 유일했다.



이를 통해 협회는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을 아우르는 통합형 리그제 시행을 통한 테니스 시스템 전면 개편에 나설 수 있게 됐다. 지역별 기초리그 활성화를 통해 테니스 참여 인구를 늘리고, 엘리트 선수 자원을 확보해 테니스 프로화까지 이어지는 선진국형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다.

2023 디비전리그는 T7로 체계를 변경해 진행된다. 지난해와는 다르게 생활체육 상급, 일반, 초보로 이어지는 T5·6·7 등 3개 리그가 운영된다. 전국 156개 리그에서 936개 팀의 7500여 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리그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진행되는데, 전국 42개 리그에서 960개 팀, 3800여 명이 참가한다.

대한테니스협회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주니어 육성사업이 꾸준히 진행되고, 문체부와 체육회 지원으로 추진되는 사업들이 안정화되면, 그랜드슬램 등 세계무대에서 한국 테니스가 화려하게 꽃피울 날도 머지 않을 것이다.

글/김경무 스포츠서를 전문기자



- 1 2년 연속 ‘테니스 월드컵’인 데이비스컵 본선 진출에 성공한 한국 남자 테니스.
- 2 ‘테니스 전설’ 이덕희 이후 40년 만에 WTA 대회(125K 노디아 오픈) 우승을 차지한 장수정.
- 3 한국인 최초로 ATP 2승을 달성한 권순우.
- 4·5 대한테니스협회는 노호영(위)과 조세혁(아래)을 대한테니스협회 1, 2호 장학생으로 선발하고 세계적인 유명 아카데미에 파견했다.
- 6 대한테니스협회와 미디어월의 육사 코트 부채 타결 합의문 조인식. 대한테니스협회 정희균 회장(오른쪽)과 미디어월 주원홍 상임고문이 서로 사인한 합의문을 들어보이고 있다.
- 7 이은형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왼쪽)과 정희균 대한테니스협회 회장은 지난해 9월 메인스폰서 협약을 체결했다.
- 8 열기 뜨거웠던 2022 테니스 페스티벌. 전국에서 모인 승강제 리그와 리그 참가자들은 겨울 추위로 잊은 채 테니스 축제를 즐겼다.



한국 여자 테니스 25년 만에 빌리진킹컵 지역 예선 통과



“육성+미래 둘 다 잡았다” 과감한 세대교체와 용병술로, 잔류 넘어 플레이오프 진출까지

한국 여자 테니스가 25년 만에 국가대항전인 빌리진킹컵 지역 예선을 통과하며 한 단계 도약할 채비를 마쳤다. 김정배 감독이 이끄는 한국 여자 테니스 대표팀은 15일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서 끝난 2023 빌리진킹컵 아시아 오세아니아 지역 1그룹 예선에서 3승 2패를 기록했다. 5전 전승으로 1위를 차지한 일본에 이어 6개 참가국 중 2위에 오른 우리나라는 11월 플레이오프에 나가기 됐다.

빌리진킹컵은 2019년까지 페드컵으로 불린 여자 테니스 국가대항전이다. 남자테니스의 데이비스컵에 해당하는다. 한국 여자 테니스가 빌리진킹컵 지역 예선을 통과한 것은 1998년 월드그룹 2 진출을 위한 플레이오프에 오른 이후 이번이 무려 25년 만이다. 올해 예선에는 한국 외에 일본, 중국, 인도, 태국, 우즈베키스탄 등 6개 나라가 출전했다.

김다빈과 구연우, 백다연, 최지희, 정보영으로 대표팀을 꾸린 한국은 2차전에서 중국을 꺾고 기세를 올렸으나 3차전 태국에 패하면서 한때 지역 2그룹 강등 위기까지 내몰렸다. 1, 2위가

플레이오프에 나가고, 5위와 6위는 지역 2그룹으로 내려가는데 태국은 반드시 잡아야 하는 상대였기 때문이다. 최종전 상대인 인도를 반드시 꺾어야 강등을 피할 수 있었던 우리나라는 인도와 접전 끝에 2-1 승리를 거두고, 최종전에서 중국이 일본에 패한 덕에 2위까지 올라 목표였던 1그룹 잔류를 뛰어넘는 플레이오프 진출을 달성했다.

한국 여자 테니스는 2000년대 초반까지 조운정이 여자프로테니스(WTA) 투어에서 활약한 이후 세계 무대에서 이렇다 할 성적을 내지 못했다. 1979년생 조운정은 현역 시절 WTA 투어 단식에서 세 차례 준우승하고 2002년과 2005년 US 오픈에서는 단식 3회전(32강)까지 진출한 선수다. 단식 개인 최고 랭킹은 2003년 45위다.

조운정의 뒤를 이어 한국 여자 테니스의 에이스 역할을 맡은 선수들은 역시 '원투 펀치'인 장수정과 한나래다. 장수정은 2013년 WTA 투어 코리아오픈 단식에서 8강까지 진출했고, 지난해에는 투어보다 한 등급 낮은 WTA 125K 시리즈 스웨덴 대회에서 우승한 선수다. 또 원소집이 한나래는 2018년 WTA 투어 코리아오픈, 2021 WTA 125K 시리즈로 열린 코리아오픈 복식에서 우승한 경력이 있다. 이번 한국 여자 테니스의 국가대항전 지역 예선 통과가 더욱 의미 있는 것은 장수정과 한나래가 국제 대회 출전 등의 일정으로 인해 올해 빌리진킹컵 예선에 뛰지 못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4월 21일 현재 단식 랭킹은 장수정이 122위, 한나래 177위고 이후로는 구연우 419위, 백다연 587위, 김다빈 634위, 정보영 681위다. 복식에 강한 최지희는 복식 랭킹 309위다. 무엇보다 구연우와 정보영이 2003년생, 백다연 2002년생 등

젊은 선수들이 주축이 돼 아시아 오세아니아 지역 관문을 넘어섰다는 것이 긍정적이다. 이번 대회에 출전하지 않은 단식 랭킹 432위 박소현도 2002년생으로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큰 선수다.

원투 펀치'인 장수정과 한나래도 앞으로 수년간 장성기 기량을 발휘하기에 충분한 나이다. 장수정이 1995년생이고, 1992년생 한나래가 베테랑의 길로 접어들며 노련미가 더해질 때다. 사실 한국 테니스는 남자보다 여자가 더 해볼만 할 것으로 여겨졌다. 국내 유일의 투어 대회인 코리아오픈이 WTA 투어 대회인 것도 여자 쪽에서 더 빨리 세계 정상에 가까워질 수 있다는 판단이 더해진 결과다.

우리나라와 체형이 비슷한 일본과 중국, 대만에서는 단식과 복식에서 꾸준히 톱랭커들이 나오는 상황 역시 여자 테니스의 발전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전망하는 계기가 됐다.

그러나 오히려 남자에서 이형택에 이어 정현, 권순우 등 남자프로테니스(ATP) 투어 정상급 선수들이 나왔지만 여자 쪽에서는 최근 투어급에서 뛰는 선수가 뜸해진 것이 사실이다.

어릴 때부터 운동 신장이 있는 여학생들은 나중에 돈을 잘 벌수 있고, 국내 인기도 많은 골프나 축구, 배구로 몰리는 현실 역시 한국 여자 테니스 발전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 셈이다. 그런 면에서 이번 한국 여자 테니스의 아시아 오세아니아 지역 예선 통과는 작은 시작이 될 수 있다.

객관적인 전력에서 아직은 11월로 예정된 플레이오프 통과 가능성이 크지는 않지만 세계적인 강국들과 맞대결할 기회를 얻는다면 그 자체로 한국 여자테니스를 일반 팬들에게 알릴 기회가 된다.

또 꾸준히 국제 대회에 출전하며 투어 이상급 대회 진출을 노리는 장수정과 한나래를 필두로 이제 막 성인 무대를 시작하는 시기인 선수들까지 투어에 뿌리 내리는 선수가 배출된다면 한국 여자 테니스 저변 확대에 큰 보탬이 될 수 있다. 다만 선수들이 꾸준히 국제 대회에 출전하며 랭킹 포인트를 쌓으려면 뜻있는 기업들의 후원이 절실하다. 물론 기업 입장에서는 성적을 먼저 내야 후원을 검토할 수 있기 때문에 '성적이 먼저냐, 후원이 먼저냐'와 같은 문제가 늘 따라 붙기 마련이지만, 현재 우리나라 톱랭커들인 장수정, 한나래도 외국 대회에 꾸준히 출전하기 쉽지 않은 현실은 필자 역시 테니스 팬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까운 마음이다.

빌리진킹컵은 세계 16강에 해당하는 본선과 그 직전 단계인 본선 진출전(Qualifiers), 본선 진출전에 나갈 팀을 정하는 플레이오프, 그리고 그다음 단계인 대륙별 1, 2그룹으로 나뉜다.

우리나라는 이번에 아시아 오세아니아 지역 1그룹을 통과해 플레이오프까지 올라 있는 상태다. 11월 플레이오프에서 이기면 16강 본선 진출전에 나갈 수 있고, 거기서도 승리하면 세계 16강에 이름을 올릴 수 있다.

최근 2년 연속 데이비스컵 세계 16강에 오른 남자 대표팀처럼 여자 대표팀도 빌리진킹컵에서 승리의 기쁜 소식을 또 전해줄 수 있을지 2023시즌 한국 여자 테니스 선수들의 활약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다.

글/김동찬 연합뉴스 기자

세계선수권 플레이오프 진출 이룬 선수들의 한 마디



최지희(NH농협은행)

우선 플레이오프에 올라가게 돼서 너무 기쁘다. 한 게임 한 게임이 중요했다. 기회가 왔을 때 더 간절한 마음으로 집중하며 이겨낸 것이 좋은 결과로 이어진 것 같다. 대표팀에서 주장 역할이 처음이라 걱정을 많이 했는데 동생들이 잘 따라와 줬다. 이번 성과는 모두 하나돼 이뤄낸 결과이다. 다음 대회에서도 좋은 결과로 보답할 수 있게 열심히 준비하겠다.



김다빈(강원도청)

간절한 마음으로 매 경기를 소중하게 여기며 경기했다. 밖에서 진심으로 응원해 주는 동료들이 있기에 마지막 힘까지 다 짜내서 플레이했다. 다른 팀보다 전력이 약했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훨씬 더 간절하게 임했기에 승리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우리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좋은 경기를 할 수 있어서 행복한 시간이었다.



백다연(NH농협은행)

처음 태극마크를 달았다. 대한민국 대표로 나가 경기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행복하고 감사한 일인데 이렇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 가슴 벅차다. 좋은 동료들을 만나 서로 믿고 의지하다 보니 25년 만에 플레이오프 티켓까지 얻게 됐다. 다들 처음이라 부담이 컸을 텐데 잘 이겨내줘서 모두에게 고맙다. 특히 인도와 1대 1 상황에서 긴장감과 부담감을 이겨내고 우리에게 승리의 기쁨을 만끽하게 해준 언니들에게 감사 인사 전하고 싶다.



구연우(성남시청)

너무 행복한 일주일을 보낸 것 같다. 빌리진킹컵은 처음이라 긴장감과 부담감이 컸지만 좋은 경험이었다. 언니들과 같이 열심히 준비한 만큼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었다. 플레이오프까지 남은 기간 부족한 점을 보완해 더 나아진 모습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다.



정보영(NH농협은행)

다 같이 한 마음으로 좋은 결과를 만들게 돼 감사하고 기쁘다. 이번 대회를 통해 태극마크의 무게와 책임감을 더 느끼게 됐다. 다음 대회에서도 더 좋은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한국, 데이비스컵 테니스 본선서 스페인-세르비아-체코와 C조



한국 남자 테니스 대표팀이 데이비스컵 본선에서 스페인, 세르비아, 체코와 함께 C조에 편성됐다. 국제테니스 연맹(ITF)이 3월 30일 발표한 데이비스컵 본선 조 편성 결과에 따르면 데이비스컵 랭킹 15위인 한국은 스페인(2위), 세르비아(8위), 체코(13위)를 상대하게 됐다. 한국은 지난해에도 스페인, 세르비아와 같은 조에 편성됐다. C조 경기는 오는 9월 12일부터 17일까지 스페인 발렌시아에서 열린다.

'테니스 월드컵'으로 불리는 데이비스컵 본선에는 지역 예선을 거쳐 올라온 16개국이 출전하며, 이들은 4개 조로 나뉘어 이탈리아 볼로냐(A조), 영국 맨체스터(B조), 스페인 발렌시아(C조), 크로아티아(도시 미정, D조)에서 각각 조별리그를 치른다. 여기서 각 조 상위 2개국은 11

월 21일부터 26일까지 스페인 말라가에서 열리는 결선 토너먼트에 진출해 우승컵을 다툰다.

한편, 한국은 2월 서울 올림픽공원에서 열린 데이비스 본선 진출 결정전 벨기에와의 경기에서 3-2로 패전한 역전승을 거두고 2년 연속 본선행 티켓을 따냈다. 한국이 데이비스컵 본선에 오른 것은 1981년과 1987년, 2007년, 2022년에 이어 올해가 5번째다.

DAVIS CUP GROUP STAGE			
GROUP A	GROUP B	GROUP C	GROUP D
CANADA	AUSTRALIA	SPAIN	CROATIA
ITALY	GREAT BRITAIN	SERBIA	NETHERLANDS
SWEDEN	FRANCE	CZECH REPUBLIC	USA
CHINA	SWITZERLAND	KOREA, REP.	FINLAND

주니어 테니스도 세계 16강 2023 ITF 월드주니어테니스대회, 남녀 동반 본선 진출

한국 14세 이하 남녀 테니스 대표팀이 2023 ITF 월드주니어 테니스대회에서 동반 본선 진출에 성공했다. 김이숙 감독(최주연 아카데미)이 이끄는 남자 대표팀은 4월 1일 말레이시아 쿠칭에서 열린 월드주니어 지역 예선 34위전에서 홍콩에 2-0으로 승리하며 3위로 본선에 올랐다. 조윤정 감독(싱크론 아카데미)의 여자 대표팀은 3월 25일 같은 대회에서 준우승하며 먼저 본선 진출을 확정 지었다.

ITF 월드주니어 테니스대회는 14세 이하 세계 주니어 테니



스 국가대항전이다. 지역 예선을 통과한 남녀 16개국이 8월 체코에서 본선을 펼친다.

본선 진출의 쾌거를 이룬 남자 대표팀 김이숙 감독은 “34위전에서 우리 선수들 모두 파이트팅 넘치는 모습으로 두 단식을 모두 이겨 3위로 마무리했다. 감동의 순간이 많았다. 선수들 컨디션 관리를 위해 뒷바라지 한 이스칸 코치와 팀을 바치려 함으로써 우리 선수들에게 고맙다는 말 전한다. 애써준 테니스협회 회장님과 협회 직원들께도 감사하다”고 소감을 전했다.

여자 대표팀 조윤정 감독 역시 “비로 결승전이 지연되고 중단돼 흐름이 끊겼다. 이기고자 하는 마음이 강해 더욱 집중했지만 준우승에 머물러 아쉬웠다. 그래도 우리 선수들 모두 서로를 응원하며 본선을 가고자 열심히 뛰어난 덕분에 좋은 결과가 있었다. 선수들 컨디션을 잘 관리해 주신 트레너나 선생님들이 계셔서 끝까지 잘 뛸 수 있었다. 이렇게 기회를 주시고 노력한 지원을 해주신 대한테니스협회장님 및 관계자 분들께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대한민국 14세 이하 남녀 테니스 대표팀, 2023 ITF 14세 이하 아시아 챔피언십 대회에서 종합 우승!



한국 14세 이하(U-14) 남녀 테니스 대표팀이 인도 부바네스워르에서 2023년도 국제테니스연맹(ITF) 14세 이하 아시아 챔피언십 대회에서 종합 우승을 차지했다. 남자 대표팀 김원민(안동중)은 1, 2차 대회 모두 단복식 타이틀을 싹쓸이하며 대회 4관왕에 올랐다. 김원민은 4월 13일 조민혁(남원거점스포츠클럽)과 복식 우승을 차지한 데 이어 14일 열린 2차 대회 남자단식 결승에서 시브테즈 시르폴레(인도)를 2-0(6-1, 6-0)으로 완파하며 정상에 올랐다.

4관왕에 오른 김원민은 “대회를 하면서 컨디션이 올라오는 걸 느꼈다. 그 컨디션을 유지하니 정신적으로도 많이 좋아진 것 같다. 이번 대회를 통해 많이 배웠다. 지도해주신 김이숙, 안영재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도와주시는 정회근 회장님과 손영자 회장님, 김인술 회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고 소감을 전했다.

김원민과 파트너를 이뤄 우승컵 2개를 따낸 조민혁도 “이번 대회를 치르며 부

족한 부분을 많이 느꼈다. 한국에 돌아가서 부족한 부분을 메우기 위해 노력하겠다. 이번 대회를 단식 2등과 복식 2개 대회 우승으로 마무리해서 좋았다. 코칭스태프 선생님께서 도와주셔서 힘이 됐다. 다음 기회에도 선생님들과 같이 가게 된다면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다. 여기까지 오게 해주신 정회근 회장님께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한국은 여자 단식도 석권했다. 홍예리(서울양진초)는 2차 대회 여자단식 결승에서 에바 코리세바(키자흐스탄)를 2-0(6-3 6-0)으로 꺾고 정상에 올랐다. 한 주 전 열린 1차 대회 여자단식 결승에서는 오지윤(양주DTA)이 우승했다. 홍예리와 오지윤은 1차 대회에서 여자 복식 우승도 합작했다.

홍예리는 “1차 대회 복식 우승, 2차 대회 단식 우승을 하게 돼 정말 기분이 좋다”고 기쁨을 드러냈고, 오지윤 (양주DTA)은 “큰 대회에 참가해서 너무 좋았는데 우승까지 해서 더욱 기쁘다”며 활짝 웃었다.

이웅비, 안동국제주니어J30 단·복식 2관왕 차지

이웅비(서안천고)가 안동에서 또다시 2관왕에 등극했다. 4월 9일 안동 시민운동장 테니스장에서 열린 ITF 안동국제주니어J30(5그룹)대회 단식 결승에서 이번 대회 통시드를 받은 이웅비(서안천고)는 유가와 야마토(일본)를 2-0(6-2 6-3)으로 꺾고 챔피언에 올랐다. 이웅비는 8일 복식 결승에서도 서정훈(안동고)과 우승을 합작해 이번 대회 2관왕에 올랐다. 지난해 11월 안동국제주니어 3그룹대회 단·복식 2관왕에 올랐던 이웅비는 또 다시 안동에서 국제대회 2관왕을 차지하며 안동과 좋은 인연을 다시 이어갔다.

이웅비는 “지난해에도 이 자리에서 2관왕에 올랐었는데 올해도 또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와서 매우 기쁘다. 사실 중별 때도 2관왕 기회가 있었는데 자신 있게 하질 못했다. 안동은 코트도 내 스타일에 맞는 것 같다. 부모님이 직접 오시지는 않았지만 늘 응원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고 우승 소감을 전했다.



테니스 유망주 육성을 위한 시작 KTA 투어링 팀 프로젝트

“선발된 유망주에게 투어 비용 지원” “해외 우수 아카데미와 연계한 프로그램 혜택”

“이웃 나라 중국, 일본에서도 선수 육성을 위해 한 발 더 뛰며 노력하고 있는데, 우리도 빨리 시작해야 합니다.”

테니스 유망주 발굴 및 육성을 위한 대한테니스협회의 투자는 그렇게 시작됐다. 이를하여 ‘KTA 투어링 팀’이다. 협회는 올해 주니어 육성 사업을 더욱 확대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KTA 투어링 팀을 꾸렸다. 한국 테니스를 이끌 유망 선수들을 KTA 투어링 팀에 발탁해 체계적인 지원으로 경기력을 끌어올려서 투어급 선수로 성장시키겠다는 협회의 야심만만한 프로젝트다.

4월초 김영홍 전 한솔테니스단 감독을 초대 감독으로 선임한 KTA 투어링 팀은 곧바로 선수 선발에 나섰다. U-14, U-18, 18세 이상·20세 이하 선수를 대상으로 ‘잠재력’과 ‘국내·국제대회 우수 입상자’, ‘KTA, ATF, ITF 상위 랭커’ 등의 객관적인 지표를 따져봤다. 그 결과 노호영, 조세혁, 정보영, 김유진, 조민혁, 오지윤, 김원민, 홍예리, 김원민, 홍예리, 김동재, 신우빈, 주희원 등 총 11명의 선수가 2023년 투어링 팀에 선발됐다. 이들은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뒀으며 성장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선수들로 평가받고 있다. 이들 가운데 조세혁은 지난해 7월 열린 2022 월드컵 때 신설된 14세부 남자 단식 챔피언에 올랐다.

2023 KTA 투어링 팀의 활동 기간은 오는 12월 31일까지다. 협회에서 투어링 팀에 선발된 선수들에게 훈련 캠프와 대회 출전 지원 등 행정과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 또 선발 선수들의 연령, 수준 등을 고려해 그룹 및 개별 훈련을 진행한다. 선수들에게 동기 부여를 심어주기 위해 IMG 아카데미와 같은 해외 우수 아카데미와 연계된 훈련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할 계획이다.



“맞춤형 시스템 앞세워 선수 육성에 박차”

KTA 투어링 팀 김영홍 감독



2023 KTA 투어링 팀		
코칭스태프 감독·김영홍 코치·김이숙, 임용규, 신미란		
선발 선수		* 랭킹은 2023. 02. 28 기준
성명	랭킹	주요실적
노호영	주니어 KTA 1위, ITF 53위	· 2022년 장호 홍중문배 전국주니어테니스대회 단식1위
조세혁	주니어 KTA 7위	· 2022년 영국 임벌던테니스대회 14세부 단식1위 · 2022년 전국종별테니스대회 단식1위
정보영	KTA 8위	· 2022년 비트로한국실업테니스마스터즈대회 단식1위 · 2022년 ITF 서울엘세이크국제여자테니스대회 복식1위
김유진	주니어 KTA 1위, ITF 68위	· 2022년 제66회 장호 홍중문배주니어테니스대회 단식1위 · 2022년 ITF 아덕화배 국제주니어테니스대회 단식3위
조민혁	주니어 ATF 1위, KTA 35위	· 2022년 ATF0덕화배14세국제주니어대회 단식2위 · 2023년 호주오픈U14세 주니어테니스대회 단식3위
오지윤	주니어 ATF 2위, KTA 39위	· 2022년 ATF안동14세국제주니어대회 단식1위 · 2022년 ATF0덕화배14세국제주니어대회 단식3위
김원민	주니어 ATF 2위, KTA 3위	· 2022년 2차 아시아 14&U 챔피언십테니스대회 단식2위 · 제1회 대한테니스협회장배 전국테니스대회 단식1위
홍예리	주니어 ATF 26위, KTA 36위	· 2022년 제2차 ATF안동14세국제주니어대회 단식1위 · 2022년 제1회 대한테니스협회장배 12세부 단식1위
김동재	주니어 ATF 44위, KTA 85위	· 2022년 전국종별테니스대회 12세부 단식1위 · 2022년 포르토 산 조르지오 국제주니어대회 단식3위
신우빈	KTA 29위, ITF 68위	· 2022년 ITF안동로 국제남자테니스투어대회 단식3위 · 2023년 ITF 자카르타 국제남자테니스대회 복식3위
주희원	주니어 KTA 31위	· 2022년 제77회 전국학생선수권테니스대회 14세단식3위 · 2023년 ITF타이난국제주니어테니스대회 단식3위

스포츠 세계에서 정해진 길은 없다. 특히 지도자가 되는 방법은 너무도 많고 또 다양하다. 무엇보다 감독은 많은 경험을 쌓아야 한다. 가장 당연한 자격이다. 투어링 팀 감독으로 선임된 김영홍 감독은 좋은 지도자가 되기 위한 필수 코스를 밟은 몇 안 되는 사람 중 한 명이다. 한솔테니스단에서 오랜 감독 생활, 풍부한 해외 연수 경험을 바탕으로 권순우, 임용규 등 한국 테니스의 보물들을 키워냈다. 그동안 다른 지도자와는 차별화된 길을 걸었던 김영홍 감독은 이제 ‘유망주 육성’이라는 막중한 책임감을 안고 또 다른 출발점에 섰다.

Q 먼저 투어링 팀 감독직에 부임한 소감은?

한솔테니스단에 있을 때부터 주니어 육성팀을 운영했다. 다른 나라 아카데미 시스템도 관심 있어 주니어 육성과 관련해 집중적으로 공부해왔다. 협회에서 투어링 팀을 만든다는 소식을 접하고 협회에 팀을 육성해보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Q 투어링 팀 유망주 프로젝트를 소개하자면?

호주, 영국, 프랑스 등 데이비스컵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는 나라를 보면 주니어 육성 시스템 기반이 잘 갖춰져 있다. 그런 나라들의 선진 육성 시스템을 접목해보고 싶다. 선수들의 수준에 맞춰 ATP, ITF, WTA 등으로 투어를 갈 수 있게끔 맞춤형 전략으로 유망주들을 육성하고 싶다.

Q 현재 한국 테니스 유망주 풀(Pool)은 어떤가?

전체적인 선수 비율이 낮지만, 그래도 좋은 선수들이 늘어나는 추세다. 개인적인 견해지만 이 선수들이 학교를 졸업하고 실업팀으로 가는 게 절대 나쁜 게 아니다. 다만 더 큰 목표를 바라봤으면 한다. 세계 랭킹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결국 투어 대회를 뛰어야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아쉬움이 있었다. 마라톤에 비유하면 더 멀리 내다보고 장거리를 뛰어야 한다. 조금 수준이 높은 상위 대회 같은 경우 한두 번 출전하고 포기하는 경우를 많이 봤다. 선수들이 투어 대회를 바라보며 동기

부여를 얻고 오랜 기간 버틸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싶다.

Q 투어링 팀 프로젝트의 방향성은?

물론 실력을 향상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선수들에게 각 투어를 어떻게 다녀야 하는지와 각 투어마다 중요성이 얼마나 큰지를 정확하게 인지시켜주는 것이라고 본다. 또 이 선수가 ATP로 가야 할지 ITF로 가야 할지 연령대별로 맞춤형 전략을 적용할 계획이다.

Q 한국 테니스는 또 다른 시작점에 섰다. 수장으로서 책임감을 갖 것 같다.

한솔테니스단 감독으로 있을 때 그랜드슬램 대회를 경험한 이후로 지도자로서 더 큰 무대를 향한 꿈을 품었다. 그 이후로 IMG 아카데미 연수를 다녀왔고 해외 코치 연수를 통해 해외의 유능한 지도자들과도 이야기를 많이 나누기도 했다. 이제는 내가 그동안 배운 것들을 토대로 협회와 코치진, 선수들, 그리고 학부모들에게 많이 공유하고 나눠야 할 때가 아닌가 싶다. 여러모로 책임감이 크다.

Q 앞으로 예정된 계획은?

현재는 투어링 팀에 선발된 선수들과 미팅을 통해 소통하고 교감하는 단계에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투어링 팀 시스템을 이해하고, 체계를 받아들이는 것을 우선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국가대표 선수들과 연계해 훈련할 계획을 갖고 있다. 선수단을 이끌고 IMG 아카데미 다녀를 생각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현재 협회와 조율 중이다.

Q 마지막으로 선수들에게 메시지를 전해달라.

세계적인 선수, 투어급 선수가 되기 위해서는 운동을 열심히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선수들이 가야 할 리그, 토너먼트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공부하는 것도 각자가 성공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런 점을 잘 인지하고 임해줬으면 한다. 나 역시 수장으로서 그런 시스템을 선수들이 잘 이해할 수 있게끔 도움이 되고 싶다.

‘하나증권 제2회 대한테니스협회장배 전국테니스대회



KTA 최다 랭킹 포인트 부여한 대한테니스협회장배 전국 테니스 대회

4월 9일부터 16일까지 강원도 양구군의 양구테니스파크에서 ‘하나증권 제2회 대한테니스협회장배 전국테니스대회’가 열렸다. 대한테니스협회가 주최, 주관 하는 대회로 지난해 첫 발을 뒀다. 그동안 한국테니스선수권 등이 국내를 대표 하는 전국 단위 대회로 자리를 잡았지만 정착 대한테니스협회장 명칭을 내건 전국 단위 테니스대회는 없었다.

협회는 테니스의 위상을 높이고 우수 선수를 육성하기 위해 지난해 초등부, 중·고등부, 대학부, 일반부까지 전 연령대가 참가하는 국내 테니스 최대 규모대회를 ‘대한테니스협회장배 전국테니스대회’로 출범시켰다. 비록 역사는 짧지만, 대회의 위상과 규모는 다른 전국 단위 대회 못지않다. 상금은 국내 최대 규모인 한국테니스선수권대회에 버금간다. 2회 대회인 올해부터는 선수들을 향한 대우와 미디어 투자에도 적극적으로 나서며 대회 규모를 더 키우고 있다.



협회는 대회 자체의 가치를 끌어올리는 새로운 전략에도 노력을 기울였다. 이런 많은 준비와 열정 덕분에 국내를 대표하는 전국 단위 테니스대회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할 체비를 마쳤다. 대회장 곳곳을 누비며 동문서주한 홍성동 토너먼트 디렉터는 “그동안 대한테니스협회장배 명칭을 단 대회는 없었다. 협회에서 필요성을 느껴 지난해 대회를 신설했다. 이전까지 국내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한국테니스선수권대회에 버금 가는 수준이다. 대회 규모가 큰 만큼 뛰어난 기량을 갖춘 선수들이 참가해 좋은 경기력을 자랑하고 있다. 아직 역사가 짧아 미비한 점들이 있지만, 앞으로 차차 보완해나가 국내를 대표하는 테니스대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했다.

이번 대회는 참가 선수들에게 랭킹포인트를 주는 게 큰 특징이다. 우승자는 국내 대회 최대 KTA 랭킹포인트인 400점을 받는다. 테니스대회는 선수들의 랭킹 포인트에 따라 출전 자격을 제한하는 게 일반적이다. 선수들에게 랭킹포인트는 생명과도 같다. 8강 이상 성적을 거둔다면 랭킹포인트를 단번에 크게 끌어올릴 수 있다. 여자부 단식 4강에 오른 안유진(고양시청)은 “선수 입장에서 랭킹포인트를 올릴 수 있다면 여러모로 좋은 점이 많다. 이번 대회 4강에 올랐는데 랭킹포인트가 이전보다 오르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회 개최 장소인 양구테니스파크는 실내코트 4면을 비롯해 국제규격의 실내외 테니스 코트 16면을 갖춰 전국 단위의 테니스대회를 개최하기에는 최적의 조건을 갖췄다.

홍성동 토너먼트 디렉터는 “양구군이 전국 단위 테니스대회가 열리기에는 최적의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앞으로 테니스가 중심에 설 수 있도록 양구군과 적극 협력해나갈 것이다”면서 “더불어 양구군 지역경제에도 활성화돼 상호 우호적 관계가 지속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앞으로 대회의 지속적인 성공을 위한 조건도 얘기했다. “또 내년, 내후년 3~4회 대회를 내다봤을 때 심판 수, 판정의 질을 높이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다. 또 대회 홍보를 강화하고 예산도 늘려서 선수들이 부담 없이 더 좋은 환경에서 뛸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중·고등부(14, 16, 18세부), 대학부 대회도 6월에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명품 대회란 이런 것’

참가 선수들의 말. 말. 말.

박의성(국군체육부대)

“지난해 처음 신설된 대회지만, 규모를 키워 짧은 기간 대회로 성장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좋은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둔다면 더 영광스러운 일이다. 해외 대회 위주로 출전해 국내 대회 포인트가 부족했던 이번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둬서 국내 대회 포인트를 더 많이 쌓아 올리고 싶다.”

안유진(고양시청)

“아무래도 상금 규모가 크다 보니까 참가 선수들도 더 열심히 경기에 임하게 된다. 대회 기간에 실시간으로 경기 기록을 제공하고 전 경기를 생중계하는 등 다양한 콘텐츠도 제공해주셔서 매우 만족스럽다.”

임용규(전북테니스협회)

“매년 이렇게 새로운 대회가 계속 만들어지고 환경이 점점 좋아진다는 점에서 만족한다. 그동안 선수들이 바라던 부분을 충족시켜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상금 규모도 더 늘린다면 선수로서 동기부여도 생기고 감사할 것 같다. 물론 이것은 전적으로 선수들의 몫이다.”

전국테니스대회’ 현장 속으로

8일 간의 열전



김채리



정홍

실업 데뷔 첫 우승 기쁨 김채리, 5년 만의 우승 탈환 정홍

하나증권 제2회 대한테니스협회장배 전국테니스대회에 참가한 선수들은 저마다 우승을 목표로 내걸고 8일간의 열전에 돌입했다.

경기는 단식 3세트 매치(세트마다 66 타이브레이크 적용), 복식혼합복식은 No-ad 방식(세트율 10포인트 매치 타이브레이크 적용)으로 치러졌다. 대회 도중, 비가 내리는 날씨 속에서도 선수들은 예정된 경기를 모두 소화해냈다. 그 결과 여자부에서는 김채리(부천시청)가 많은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 김채리는 여자 단식 결승에서 오유경(강원도청)을 2-0(7-5, 6-2)으로 가볍게 따돌리고 우승 트로피를 거머쥐었다. 2019년 실업 무대에 데뷔한 이후 3년 만에 처음으로 맛보는 우승이었다. 김채리는 팀 동료인 한형주와 파트너를 이뤄 여자 복식까지 2관왕에 오르는 겹경사를 누렸다. 김채리는 “실업 데뷔 3년 차까지 승수를 많이 쌓지 못해 개인적으로 마음고생도 많이 했다. 힘을 때마다 고등학교 시절 우승했던 기억을 떠올리며 스스로 ‘우승은 해본 사람이 또 할 수 있는 것’이라며 되뇌었다. 부천시청으로 팀을 옮긴 이후 감독님께서 마음을 편하게 해주신 것도 큰 힘이 됐다”며 “오전, 오후, 야간까지 개인 훈련도 많이 했고 멘탈 훈련도 겸해 열심히 했다. 첫 우승을 맛봤는데 앞으로도 많은 우승 트로피를 차지하고 싶지만, 우승을 목표로 삼기보다는 항상 초심을 유지해 똑같은 자세로 매 대회에 임하



일반부 우승자

남자	단식	정홍(김포시청)
여자	단식	김채리(부천시청)
남자	복식	박의성(국군체육부대) 손지훈(의정부시청)
여자	복식	김채리(부천시청) 한형주(부천시청)
혼합	복식	임용규(전북테니스협회) 임은지(충남도청)

10, 12세부 우승자

남 12세부	단식	정준서(동원초)
여 12세부	단식	김윤하(JTTA)
남 10세부	단식	권민찬(안동서부초)
여 10세부	단식	임연정(홍원초)

고 싶다”고 우승 소감을 전했다.

톱시드 박의성(국군체육부대)과 정현의 형으로 잘 알려진 정홍(김포시청)의 맞대결로 관심을 모았던 남자 단식 결승에서는 정홍이 박의성을 2-0(6-0 6-3)으로 완파했다. 이로써 정홍은 2018년 한국선수권대회 이후 5년 만에 국내 대회 단식 정상을 탈환했다. 정홍은 “기분이 조금 이상하다. 마지막에는 너무 이기고 싶어서 긴장했고 조금 흐트러지기도 했다. 그래도 다시 심기일전하고 파이팅해서 승리했다. 승리의 간절함 때문에 긴장했는지 아침에 일찍 눈이 떠지더라(웃음). 아직 다 내려놓은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솔직한 소감을 전했다. 그는 이어서 “은퇴하기 전에 한 번 더 우승해보고 싶었는데 그 목표를 이뤘다. 한 번 했으니 한 번 더 할 수 있도록 스스로 채찍질하며 부상 없이 남은 시즌을 보내고 싶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 남자복식과 혼합복식에서는 박의성-손지훈(세종시청), 임용규(전북테니스협회)-임은지(충남도청)가 각각 정상에 올랐다. 우승자에게는 각각 600만원(단식), 300만원(복식), 200만원(혼합복식)의 상금과 소정의 훈련 연금, 그리고 양구 백자 트로피가 부상으로 주어졌다.

글/ 서호민 기자 사진/ 대한테니스협회, 서호민 기자

양구에 모인 테니스 꿈나무들, “제2의 정홍-조코비치 꿈꿔요”

이번 대회는 일반부와 더불어 10, 12세부 경기도 함께 치러졌다. 10, 12세부 대회가 막을 올린 4월 15일, 양구테니스파크는 전국 각지에서 양구까지 달려온 테니스 꿈나무들로 북적였다. 이들은 아침 일찍부터 대회를 준비하느라 눈코 뜰 새 없이 바빠보였다. 꿈나무들은 저마다 꿈과 희망을 실어 테니스공을 네트 위로 날려보낼 생각이 즐거운 표정들이었다. 평소 우상으로 여기는 선수들의 경기를 지켜보며 선수로서 꿈을 키우고, 내로라하는 팀 내 간판선수들의 사인도 받고 함께 기념사진도 찍으며 잊지 못할 추억을 남겼다.

경북 군위에서 온 이예성 군(군위초3)은 “테니스를 시작한 지 1

년 3개월 정도 됐다. 이번 큰 대회에 참가할 수 있어 기쁘다. 무엇보다 정홍 선수를 실제로 볼 수 있어서 좋았다. 정홍 선수처럼 인성 바르고 착한 선수가 되고 싶다”면서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올 해로 구력 4년 차를 맞은 송승훈 군(안동서부초3) 역시도 “정홍 선수의 게임을 봤는데 재밌었다. 멘탈, 실력 하나 빠질 것 없이 최고다. 롤모델은 노박 조코비치다. 15년 뒤, 조코비치처럼 멋진 선수가 되고 싶다”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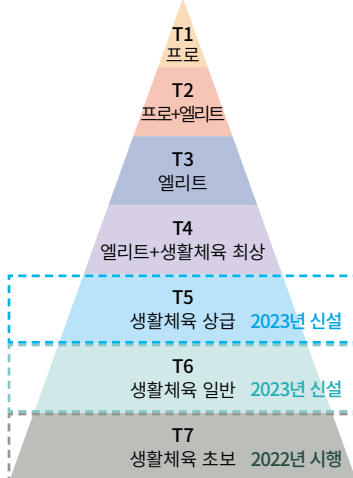


T5부터 T7까지...2023년 디비전리그 이렇게 진행됩니다!



대한테니스협회는 2022년 테니스 인구 확대와 프로화 발전을 위해 전문·생활체육 통합형 리그제인 테니스 디비전리그를 새로 도입했다. 출범 2년 차를 맞은 테니스 디비전리그는 올해 작은 변화를 시도한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생활체육 상급, 일반, 초보로 이어지는 T5~T7 등급 3개 리그로 확대 운영된다는 점이다. 올해 디비전리그는 기존 T7(생활체육 초보) 외에 T5(생활체육 상급), T6(생활체육 일반) 리그가 추가 편성됐다. T5, T6 리그의 신설은 더 많은 테니스 동호인의 참가를 유도하기 위해서다. 더 나아가 테니스를 즐길 수 있는 전문체육·생활체육 통합 리그를 만들어 테니스 인제 발굴과 저변확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새로운 리그의 신설로 2023년에는 이전보다 더 많은 테니스 동호인 선수들이 각 코트에서 켈리를 즐길 수 있게 됐다.

3단계 리그 체제로 운영되는 2023년 디비전리그는 올해는 서울, 대구, 부산 등에서 참여 의사를 밝혀 15개 시도로 확대됐다. 전국 156개 리그에서 936개 팀,



더 재미있고, 더 풍성해졌다! 2년 차 맞이하는 i리그



테니스 i리그가 두 번째 시즌을 맞이한다. 대한체육회가 주최하고 대한테니스협회를 비롯해 시도테니스협회와 시군구 테니스협회가 주관하는 i리그(유·청소년테니스클럽리그)가 5월 1일 개막을 시작으로 10월까지 개최된다.

i리그는 유·청소년들이 승부 중심 경쟁에서 벗어나 즐겁고 신나게 테니스를 즐기는 전국 규모 리그전이다. 유·청소년들이 테니스를 통해 감성과 인성을 함께 키워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문화 교육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한다. 그야말로 즐기는 테니스 문화가 모토다.

지난해 첫발을 댄 테니스 i리그는 올해 2년 차를 맞이해 더욱 풍성해졌다.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 간 진행될 2023 i리그에는 총 960개 팀, 약 3,800여 명이 참가한다. 지난해와 비교해 참가 권역은 기존 7개에서 14개로, 참가 리그 수는 277개에서 42개로 대폭 확대됐다,

문화 프로그램과 i리그 페스티벌 규모는 확장했다. 문화 프로그램은 미니게임, 테니스 페스티벌, 전문 선수 레슨 특강, 멘토링 진로상담, 에어바운스 체험활동 등 테니스와 관련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리그 1년 행사 가운데 가장 큰 축제인 i리그 페스티벌은 학생과 학부모, 지도자가 어우러진 축제의 장이다. 테니스 특강과 강습 등 테니스를 주제로 다양하면서도 재미있는 활동을 제공할 예정이다. 테니스의 기초를 다지고 보다 빠른 실력 향상을 위해 지도자강습회도 열린다. 상반기(서울)와 하반기(마정) 등 2차례에 걸쳐 열릴 예정이다. 강습회 참가자들은 최근 유소년 사이에서 인기가 높은 매직 테니스 코스를 중점적으로 지도받는다. 다가을 11월에는 각 시도 리그 총괄 관리자, 시군구 리그운영관 등을 대상으로 사업평가회를 열 계획이다. 이때 한 해 동안 추진한 결과물을 놓고 총평을 나누고 우수 사례를 공유하는 시간도 마련할 예정이다.

대한테니스협회는 i리그를 통해 테니스 저변을 강화해 유·청소년 디비전 시스템, 생활체육 디비전 시스템 도입의 바탕을 다지겠다는 취지다. 지난해 학생 선수들에게 실전 경기 경험과 실력 향상의 기회를 제공하고 선수의 경력 관리를 체계화해서 앞으로 만들어질 승강제 리그와의 연동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 이처럼 i리그라는 풀뿌리 테니스가 튼튼하게 자리잡는다면, 그 뿌리에서 잠재적으로 엘리트 선수층도 확충되리라 기대하고 있다.

글/ 서효민 기자

7500여 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정규리그 종료 이후 지역별로 승격 플레이오프가 진행된다. T7은 29개 팀과 선수, T6는 8개 팀과 선수가 상위리그로 승격한다. 반대로 최상위리그 T5에선 정규리그 3회차 결과를 기준으로 최하위 팀이 T6 리그로 강등된다. 승격 플레이오프가 치러진 뒤에는 리그별 최강자를 가리는 챔피언십이 열린다. 이후 11월 평가회를 끝으로 디비전리그의 한 시즌 일정이 모두 마무리된다.

디비전리그는 2024년 T3(전문), T4(전문+생활체육 상급), 2025년 T1(프로), T2(프로+전문)까지 확대해 피라미드 형태의 완벽한 리그 시스템을 구축해나갈 예정이다. 4월 11~12일 열린 실무자 워크숍에선 디비전리그 개막에 앞서 전반적인 지역 생활 테니스 발전 방향과 리그 규칙을 놓고 많은 논의를 했다. 출범 첫해인 지난해에는 지역마다 규정, 경기 규칙 등이 서로 달라 혼란스러웠지만, 올해부터는 규칙을 통일 적용해 리그의 조직화를 꾀하겠다는 계획이다. 물론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도 산적해 있다.

협회 관계자는 “아직 리그 수가 많이 모자라다. i리그는 정해진 리그 수를 넘겼지만, 디비전리그는 15개 리그 정도가 부족하다. 리그 승인은 지역별 수준과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 일단 첫 번째 목표는 디비전리그의 참여도를 높이는 것이다. 이를 위해선 디비전리그 인식 자체를 개선하기 위한 홍보가 잘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디비전리그 운영에 관한 현장의 다양한 의견도 각 시도 참가자에게서 나왔다. 좋은 조짐이다. 세종시테니스협회 안은숙 이사는 “세종시는 도시가 형성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테니스를 즐길 수 있는 인프라가 부족하다. 이런 상황에서 세종시도 디비전리그 출범 때부터 참가했는데 테러(테니스 초보자)들 사이에서 호응도가 높았다. 디비전리그에 참여한 것이 세종시 테니스 활성화의 작은 발걸음과 동기부여가 됐다. 2년 차에는 더 많은 동호인이 리그 경험을 통해 세종시 생활체육 테니스 수준이 한 단계 더 높아지길 기대한다”라고 디비전리그를 통해 얻고자 하는 목표를 얘기했다.



실무자 워크숍, 테니스 발전을 위한 첫걸음

4월 11일 전국 각지의 시도 리그 총괄 관리자와 시군구 리그 운영관이 참가하는 ‘2023 테니스 디비전리그 및 i리그 실무자 워크숍’이 열렸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각 사업에 참여하는 시도 리그관리자, 총괄운영관 및 시군구 리그운영관 등 약 60여 명을 대상으로 사업 계획을 공유하고 각종 교육을 했다. 테니스 저변 확대와 활성화의 뜻을 모은 지역 리그 관계자들은 질의응답 시간에 2023년도의 발전적인 사업 방향을 건의했다. 이들은 이해관계자와의 협력 방안과 조금 더 명확하고 간소화된 행정 절차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올해 처음으로 i리그에 참가하는 통영시 테니스협회 역시 통영시장은 “통영과 같은 중소 도시에서는 어린이들이 테니스를 접하기가 어렵다. 통영시 협회에서도 지난해부터 i리그에 관심을 가졌고 올해 처음으로 참가하게 됐다. 다행히 지역 아이들의 참여율이 높아 기대감이 크다. 좋은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대한체육회와 대한테니스협회에 감사드리고 i리그를 통해 테니스의 재미를 지역 유소년들에게 널리 알리고 싶다”라고 포부를 드러냈다.

테니스협회 또한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수용했다. 지역 리그 관계자들과 대화하며 의견을 수렴했다. 대한테니스협회 관계자는 “사업 평가회를 통해 현장의 고충을 허심탄회하게 들을 수 있었다. 테니스 저변확대와 발전을 위한 소통의 시간을 가지기로 약속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더 나은 시스템을 구축해 i리그가 테니스 저변확대와 인재 양성에 밑거름이 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내겠다”고 약속했다.

김영준-김정배, 2023 테니스 남녀 국가대표 감독 선임

2023년 남녀 테니스 국가대표 사령탑으로 김영준 감독(전국대)과 김정배 감독(인천시청)이 선임됐다.

남자 테니스 대표팀 김영준 감독(전국대)은 국가대표 코치로 활약하며 사상 최초 데이비스컵 2년 연속 본선 진출을 이끌었다.

여자 대표팀 지휘봉을 잡게 된 김정배 감독은 25년만에 빌리진캄플 플레이오프 진출을 이뤄냈다.



김영준 감독



김정배 감독

대한테니스협회 정희균 회장, 주한 세르비아 대사와 교류·협력 논의



정희균 대한테니스협회 회장이 3월 23일 서울시 중구에 위치한 주한 세르비아 대사관을 방문해 네마냐 그르비치 주한 세르비아 대사와 친선 대화의 장을 가졌다.

네마냐 그르비치 대사는 정희균 회장의 방문을 환영하며, 세르비아 테니스협회와의 협업을 통한 양국 코치 교류 등 양국 테니스 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협조를 약속했다. 또, 주한 대사 간 테니스 친선 경기 및 세미나 진행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네마냐 그르비치 대사는 “테니스는 세르비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 중 하나이고 개인적으로도 좋아해서 현재 세르비아, 스웨덴, 불가리아, 네덜란드, 라트비아 등 여러 나라 대사와 함께 소모임을 만들어 즐기고 있다. 앞으로 대한테니스협회와 자주 소통하며 다양한 교류와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대한테니스협회 정희균 회장은 “좋은 자리에 초청해 주셔서 감사하다. 현재 국내 테니스 인구가 60만 명에 이르는 등 한국 테니스가 부흥기를 맞고 있다. 양국의 테니스 발전 및 친선 도모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한편, 정희균 회장은 한국 국가대표팀 유니폼, 페넨트, 사인볼 등 기념품을 전달했다.

2023 ITF 하나증권 순창국제주니어테니스투어대회(U60) 개최



남자 단식	우승	김세현(양구고)
	준우승	서현석(성크론TA)
남자 복식	우승	MATSUMURA, Ren & TABATA, Ryo(일본)
	준우승	김현성(대전만년고)& 이종비(사인천고)

여자 단식	우승	이서아(춘천SC)
	준우승	CHOGSOMJAV, Maral(몽골)
여자 복식	우승	이서아(춘천SC)& 추예성(영크론TA)
	준우승	CHOGSOMJAV, Martaa(몽골)& CHOGSOMJAV, Maral(몽골)

대한테니스협회 온라인 중계 방송 진행



대한테니스협회가 2023년 주요 대회를 온라인 생중계한다.

협회는 3월 열린 ITF 하나증권 김천국제주니어테니스투어대회를 시작으로 4월 하나증권 제2회 대한테니스협회장배 전국테니스대회와 2023년도 ITF 하나증권 순창국제주니어테니스투어대회를 대한테니스협회 유튜브채널 대한테니스협회TV, 네이버 스포츠를 통해 실시간으로 중계방송했다. 대한테니스협회는 앞으로도 다양한 온라인 채널을 활용한 테니스 중계방송 및 콘텐츠 제작에 힘쓸 예정이다.

대한테니스협회 SNS 계정

유튜브	대한테니스협회TV	인스타그램	@official_kta	페이스북	with KTA
포스트	대한테니스협회	밴드	KTA News		

KTA 생활체육위원회 워크샵 개최

대한테니스협회가 4월 16일 전라북도 교통문화연수원에서 생활체육위원회 워크샵을 진행했다. 대한테니스협회 생활체육위원회(위원장 장평규)가 구성된 후 개최된 첫 워크샵이었다. 생활체육경기위원과 랭킹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워크샵에서는 생활체육 테니스 발전과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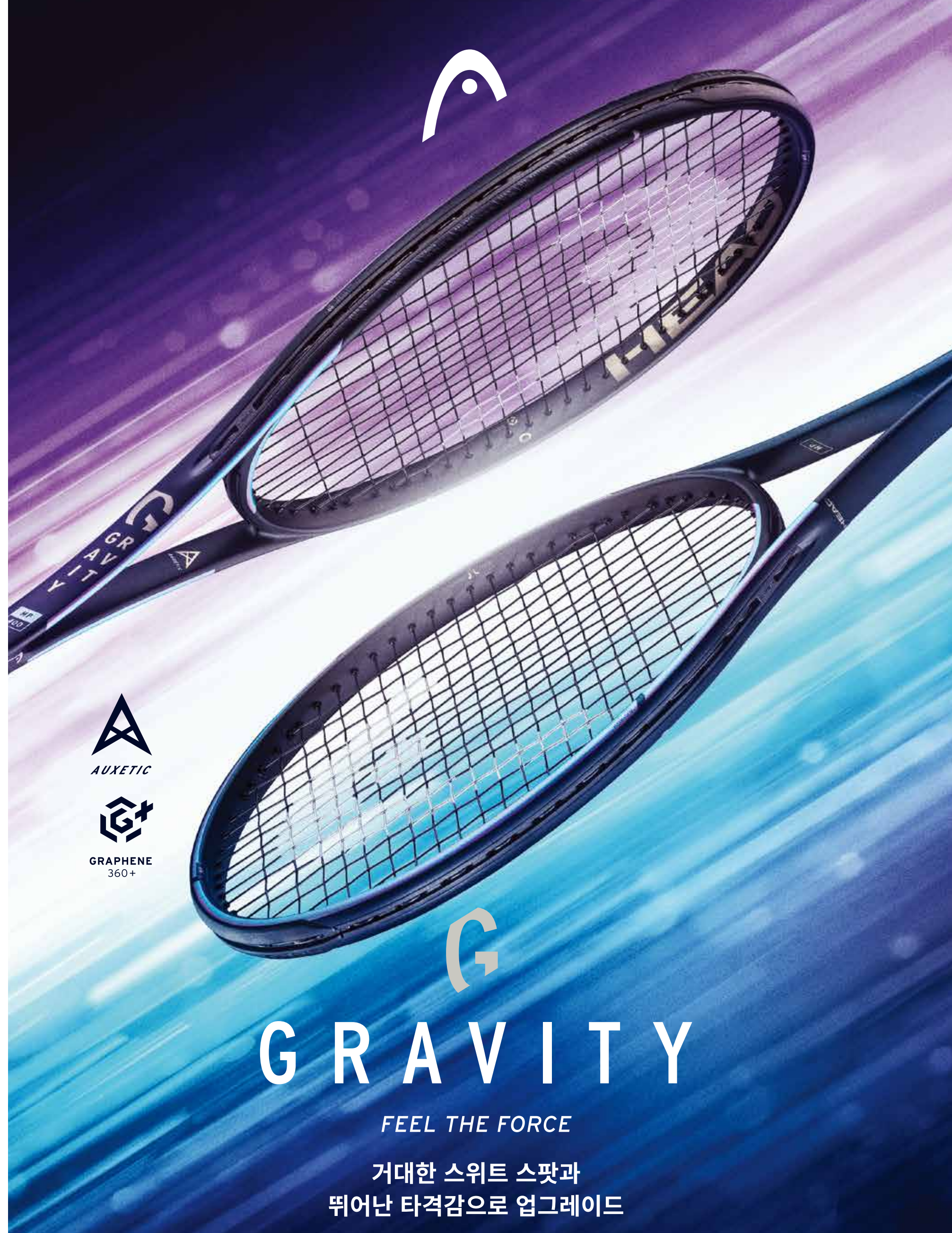
1 제1회 충남협회장 고마배 전국동호인 테니스대회 2 제43회 진주시협회장배 전국동호인 테니스대회 전국신인부 3 제21회 광양시장배 전국동호인테니스대회 개나리부 4 제21회 광양시장배 전국동호인테니스대회 남자 오픈부

테니스 대회 일정

MON	THE	WED	THU	FRI	SAT	SUN
1	2	3	4	5 어린이날	6	7
제28회 한국초등테니스연맹회장기 테니스대회 (5. 4~10, 순창)						
2023년도 세계여자주니어 테니스선수권대회 아시아/오세아니아지역 예선 (5.1~7, 카자흐스탄)						
2023년도 ATP 광주오픈 국제남자 챌린저테니스대회 (4. 30~5. 7)						
제14회 달성비슬산배 전국 동호인테니스대회 (혼합복식부)						
2023년 부천복사배 전국동호인테니스대회 (3 국화부, 4 개나리부, 5 혼합복식부, 6 전국신인부, 7 남자오픈부)						
2023 남원춘향배 전국동호인테니스대회 (4 개나리부, 5 전국신인부, 6 남자오픈부)						
제15회 세종특별자치시장배 전국동호인테니스대회 (4 국화부, 5 개나리부, 6 남자오픈부, 7 전국신인부)						
제7회 김천 전국동호인테니스대회 (5 남자오픈부, 6 지역신인부, 7 전국신인부)						
8	9	10	11	12	13	14
제28회 한국초등테니스연맹회장기 테니스대회						
2023년도 ATP 부산오픈 국제남자 챌린저테니스대회 (5. 7~14)						
2023년도 세계여자주니어 테니스선수권대회 아시아/오세아니아지역 예선 (5.8~14, 카자흐스탄)						
제15회 세종특별자치시장배 전국동호인테니스대회 (지역신인부 남자/여자)						
제35회 임해배 전국동호인테니스대회 (개나리부, 남자오픈부, 전국신인부)						
제7회 김천 전국동호인테니스대회 (13 개나리부, 14 국화부)						
제12회 물레방아골 함양군수배 전국동호인테니스대회 (12 개나리부, 13 국화부, 14 전국신인부)						
15	16	17	18	19	20	21
하나증권 제78회 전국학생테니스선수권대회 (14,16,18세부) (5. 11~20, 양구)						
2023년도 ITF 인천국제여자 테니스투어대회 (5. 14~21)						
제4회 대전한꿈이배 전국동호인 테니스대회(19 개나리부, 20 전국신인부, 21 남자오픈부)						
제 15회 진주시장배 전국동호인 테니스대회(20 국화부, 20 전국신인부, 20 베테랑부, 21 개나리부, 21 지역신인부, 21 남자오픈부)						
22	23	24	25	26	27 부처님오신날	28
제78회 전국학생테니스대회 겸 2023년도 전국대학대학 테니스대회 (5. 22~29, 미정)						
제4회 대전한꿈이배 전국동호인 테니스대회(22 국화부)						
제52회 전국소년체육대회 (5. 27~30, 울산)						
제7회 속초시 설악산배 전국동호인테니스대회(27 개나리부, 27 세미오픈부, 28 전국신인부, 28 혼합복식부)						
제8회 전라남도지사배 전국 동호인테니스대회(미확정)						
29	30	31	6/1	2	3	4
제52회 전국소년체육대회						
2023년도 ITF 창원국제여자테니스투어대회 (05. 28 ~ 06.04)						

*상기 대회 일정은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국내대회 국제대회 생활체육



특별한 스위트 존은 둥근 머리 모양으로 만들어져 가장 넓은 스트링 베드 부분이 타격감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프레임 솔더에 위치한 타원형 단면 구조는 타구 시 유연성을 높이고 타구감을 향상시켜 줍니다.



더 깊은 flex groove 단면 구조는 스트링의 움직임을 부드럽게 하고 솔더 부분의 사운드와 진동을 최적화해 타구감을 향상시킵니다.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

하나금융그룹

대한민국 테니스의 든든한 지원군

KTA 공식후원사 하나증권이
대한민국 테니스를 응원합니다



OFFICIAL SPONSOR

하나증권 모델
강 태 오

 하나증권